

투데이

# 우치동물원 명품화 '표류'

### 금호 측 사업 포기...市 "민간투자 사업자 제공모 나설 것"

#### 서정성 시의원 시정질문

호남 유일의 종합놀이공원인 패밀리리조트 및 우치동물원의 '명품화 사업'이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던 패밀리리조트 및 동물원 등 '우치공원 명품화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다 민간투자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금호리조트 측이 최근 사업보완 요구에 대해 사실상 포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서정성(민·남구 2) 의원은 23일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치공원 명품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1년 6월 금호측과의 패밀리리조트 운영협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10년 7월 '우치공원 명품화 TF팀'을 구성해 동물원 및 패밀리리조트를 포함한 우치공원 민간

투자사업을 공모하는 등 명품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공모에 참여한 금호리조트측이 최근 광주시의 사업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워낙 아웃 회사의 경영상 투자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사실상 포기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가 금호 측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재원조달 계획 등에서 부적정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새로운 제안을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금호 측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다. 금호 측은 내장객 숫자와 시설 투자 등을 감안해 사업비를 3단계로 장기 분산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자를 제공모할 계획이지만, 지역 굴지의 기업인 금호측이 한 발 물러나 있는 점을 감안할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

날지 의문이다. 다만, 금호 측이 사업비를 3단계로 장기 분산투자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와 막판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 의원은 "금호 측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데 1년이나 소요되고 이미 부적정 판정이 내려진 제안을 보완해 재신청토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금호측의 워낙아웃은 지난 2009년 12월 이뤄져 광주시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막대한 재원투여로 인해 금호 측이 사업을 떠날기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최초 제안자 공모시 6개사가 참여했던 점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자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조건을 최대한 개선해 조만간 민간 투자 사업자 제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길기자 cki@



23일 첫 선을 보인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디지털갤러리의 대형 천정 스크린에 환상적인 바다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 제공>

### 디지털 갤러리 첫 공개... 돌고래·인당수 빠지는 심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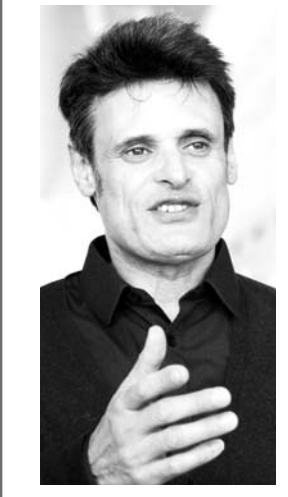
## 생동감 넘치는 218m 스크린 '탄성'

눈 앞에 돌고래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저 멀리 헤엄쳐 갔고,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이의 모습도 생생하게 펼쳐졌다. 23일 오전 첫 공개된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 엑스포디지털갤러리는 관람객이 마치 깊은 바닷속에 빠진 듯한 착각이 들게 했다.

천정에 설치된 218×30m 크기의 대형 LED 스크린(해상도 654만 화소)은 화려한 바닷속 풍경을 선사했고, 파도 소리는 생동감을 더해줬다. 또 관람객이 이름을 부르면 먼 곳에서 노닐고 있던 돌고래 반강개 해엄쳐 왔고, 스크린을 통해 고래의 몸을 만져보는 감동도 새로웠다.

박람회 아쿠아리움이 살아 있는 바다 생명들의 향연을 선보인다면, 엑스포디지털갤러리는 첨단 IT 기술로 재해석된 다양한 해양 영상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영상이 아니라 관람객이 스크린을 만지면 영상의 반응을 하는 등 신기한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 "사람 보호하는 한국 언어 참 매력적"



거문도 '신지개 인어' 되살린 프랑스 샤를 드 모 영화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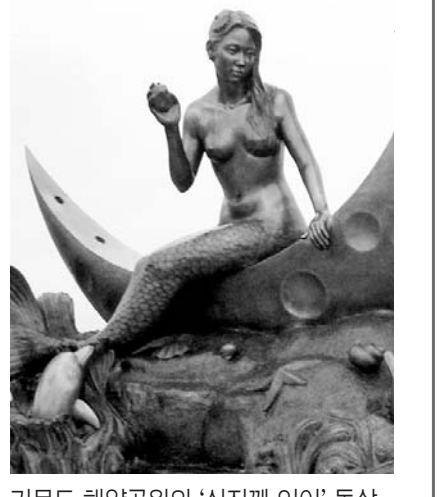
"로렐라이의 사이렌과 안데르센의 아리엘로 대표되는 서양 인어가 아닌 동양의 인어라는 점, 구체적인 전설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신지개 인어' 이야기에 매력을 느꼈어요."

거문도 '신지개 인어'를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 되살려 낸 프랑스 영화감독 샤를 드 모는 한국 언어의 '선함'에 반했다고 밝혔다. '신지

개'는 거문도 인근 해역의 여(암초) 이름이다. 그는 "서양 인어는 항해하는 배와 선원에게 해코지하는데 거문도 '신지개 인어'는 배와 선원을 보호하는 좋은 인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사제가 드문 3D 홀로그래픽 사운드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바다에 나가 파도 소리를 듣는 착각이 될 정도로 생생한 감동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샤를 드 모 감독은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잉글 본



거문도 해양공원의 '신지개 인어' 동상

## 최시중 금품수수 시인 "대선 여론조사에 썼다"

### 檢 수사 착수...민주 "불법대선자금 몸통 수사해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복합유동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23일 언론에 '금품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정작 대가는 아니다'고 밝혀 금품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최 전 위원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동단지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가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이씨에게 건너간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돈은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최 전 위원장 외에 정권의 다른 실세 인사에게도 보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를 파이시티 이 전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21일 구속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강원도 방면에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이 이번 의혹에 대해 견해

를 묻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최시중 불법대선자금 게이트'라 규정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이은 정권의 진퇴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만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인허가 청탁비리가 아닌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라며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수사해서 불법대선자금의 몸통, 즉 그 원점을 정확하게 타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alee@연합뉴스

## 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법인의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을 마련, 6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연합뉴스

##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원)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노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호